

電氣集塵機의 出現

—로지와 코트렐의 貢獻—

煙氣, 廉氣, 灰氣의 가스狀態의 物質에서부터 有用한 물질이 含有된 먼지나 固體微粒子 혹은 空氣中에 放出되면 大氣污染의 原因이 되는 廉棄物의吸收手段으로 發明된 것이 電氣集塵機이다.

電氣集塵機의 工業的開發은 그基礎를 마련한 것이 올리버 로지로서 1884년이었다. 로지는 먼지가 많은 大氣中의 한개의 棒에 帶電하면 먼지의 微粒子가 모아져 아래로 떨어짐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는 이 發見의 工業的價値를 믿고 A.O.워커와 더불어 더뱅크鉛工場에 最初의 工業的電氣集塵工場을 建設하였다. 그러나 鉛ガス의 집진이 困難하고 또 高電壓의 發生裝置가 原始的인 까닭에 失敗하여 放置하고 말았다.

그후 캘리포니아州立大學의 物理學教授인 F.G 코트렐이 이研究에 興味를 갖고 接觸硫酸製造法을 採用하고 있는 공장에서排出

되는 유산의 안개를 막아 보려는 공장의 設計를 構想하였다.

이 공장에는 로지가 사용한 電壓보다 높은 高電壓의 電流發生源과 고전압의 單一方向電擊을 供給하기 위한 機械的整流機 및 交流變壓器를 채用하였다. 드디어 1909년에 유산공장건설의 뜻을 이루었으나 鉛이나 亞鉛이 포함된 가스를 對象으로 하는 第2工場에는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그 뒤에야 特殊한手段이 必要함을 깨달았다.

그후 1927년에 뉴욕研究會社가 코트렐의 모든 特許管理를 위하여 創設되었고 그의 特許使用料로서 전기집진기의 發展된 공업화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發明特許에 寄與하게 되었다.

그동안 로지의 아들인 리오넬이 로지集塵機會社를 세워서 많은 實驗的設備를 만들었으나 1916년에 이르러 코트렐의 모든 특허

의 外國에서의 權利管理를 막고 있던 인터내셔널集塵機會社가 헌팅턴해버라인회사에 코트렐의 설계에 따른 집진기의製作權을 許與함으로써 비로서 多數의 설비가 건설되었다.

이때 西獨에서도 K 앤드 TH 베라회사가 電氣集塵機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中斷하고 大部分의 金屬冶金會社들이 연구를 계속하였다. 그려는 동안 로지집진기회사는 로지 코트렐회사로 名稱을 바꾸었고 인터내셔널 집진기회사는 自社保有特許, 設計, 노우하우의 相互交換代價로 로지회사의 株式을 取得하였다.

이로써 전기집진기는 完全히 現代化하였으며 그 발명은 로지와 코트렐의 두 科學者의 貢獻으로 認定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로지는 應用의 可能性을 提示했고 코트렐은 그 응용을 工業的規格에 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世界最大다이어는 517캐라트

—3,106캐라트原鑄서 쪼갠것—

價值判斷基準이 사람에 따라 다를수가 있지만 다이어몬드에 대한 世人의 關心은 嗜好基準이 비슷한데가 많다. 稀少價值와 奢侈性面에서 특히 共通된다고 할만하다. 다이어는 印度가 發見의 始初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記錄인즉 紀元前 7~8世紀에 印度의 아라비타族이 처음 使用했다고 되어 있다. 그때 다이어去來에는 저울 한쪽에 카라트라는 나무

열매에 무게를 매겨놓고 그 밖의 쪽에서 다이어의 무게를 가름하는 저울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다이어去來基準值를 캐라트로 했다는 由來이기도 하다. 어느 때인지는 確實치가 않으나 인도에서 產出되는 다이어가 프랑스宮內에 달리기 시작하자 그후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도 다이어를 생산하여 거래의 全盛期를 이루었다.

다이어의 種類는 產業用과 裝飾用寶石으로서 크게 나눌수 있으며 世界最大다이어는 1905年に 南阿에서 發견된 3,106 캐라트(621.2g)짜리 原鑄이다. 이 다이어는 英王 에드워드 7세에 贈呈되었고 원광이기 때문에 그후 9個로 쪼개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517캐라트짜리는 세계최대의 보석용 다이어로서 엘리자베드女王의 채프터頭部에 장식되어 蘊存되고 있다.